

“Si” 조건절의 시제 분포에 대한 소고

김 은 경¹

1. 문제의 제기

스페인어의 si 조건절은 다음과 같은 시제 분포를 보인다.¹

- (1) a. Si Pedro viene, jugaremos al fútbol.
- b. Si Pedro ha venido, jugamos al fútbol.
- c. Si el gallo cantaba alto, el día amanecía claro.
- d. Si el gallo había cantado alto, el día amanecía/había amanecido claro.
- e. Si el gallo cantó alto, el día amaneció claro.
- f. *Si Pedro vendrá, jugamos/jugaremos al fútbol.
- g. *Si Pedro habrá venido, jugamos/jugaremos al fútbol.
- h. *Si Pedro vendría/habría venido, jugaríamos al fútbol.
- I. *Si Pedro venga, jugamos al fútbol.
- j. *Si Pedro haya venido, jugamos al fútbol.
- k. Si Pedro viniera, jugaríamos al fútbol.
- l. Si Pedro hubiera venido, jugaríamos/habríamos jugado al fútbol.
- m. *Si Pedro viniere, jugaríamos al fútbol.
- n. *Si Pedro hubiere venido, jugaríamos al fútbol.

위와 같은 si 조건절의 시제 분포는 현대서반아어에 있어서 방언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그 특성을 살펴보면, 예문 f, g, h, i, j 및 m, n에서 알 수 있듯이, si 조건절은 직설법의 미래(cantaré, cantaría, habría cantado)와 접속법의 현재, 현재완료 및 미래(cante, haya venido, cantare, hubiere cantado)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스페인어 전통문법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에 따르자면, 무릇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형태가 미래형태를 대신하여 사용되며, 따라서 비문으로 처리된 모든 예문들 중 미래형태들이 사용된 문장들은(f, g, h, m, n) 일단 설명이 가능하며 구태어 그 근거를 언급하자면 si 조건절의 통사적 특징이 그러하

¹ 여기에서 사용한 예문들은 Bustos(1986, 230-231)에서 인용한 것으로 부분적으로 수정, 확장하여 본고에 적용하였다.

다 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i, j와 같이 접속법 현재와 현재완료가 사용된 문장들이 비문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이와 같은 설명의 부재는 구조문법의 범주에 있는 연구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굳이 Alarcos(1984)의 대표적 연구를 인용하더라도 미래가 의미적으로 ‘추정’의 일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추정’/‘비추정’의 대립이 접속법/직설법의 대립으로 단순화할 수 없고 그 중간단계를 미래형태(cantaré, habré cantado, cantarí, habría cantado)로 설정하였지만,² si 조건절의 의미가 또한 ‘추정’이기 때문에 미래형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추정’의 의미가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접속법의 형태들 중 유독 현재시제와 관련된 형태들만이 비문을 형성하고(i, j) 과거시제와 관련된 형태들은 정문을 이루는 것을(k, l)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특정한 시제형태들이 si 조건절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의미적 화용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si 조건문의 시제일치와 이와 관련된 의미적 특성과 화용적 전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2. si 조건절의 시제일치

si 조건절의 통사적, 의미적 특성에 대해서 스페인어문법 내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하나는 Gili Gaya(1961), RAE(1973) 등의 전통문법에서 언급해온 논리적 관점으로 “si p, entonces q”의 관계로 일종의 전제(prótasis)와 귀결(apódosis)의 관계로 설명하며 통사적으로는 si 조건절을 부사적 종속문으로 보는 것이고,³ 다른 하나는 Rivero(1979)가 제안한 바 있는 견해로서 조건절의 두 문장의 관계를 대등문으로 설정하고⁴ 접속사 si를 동사로 간

² Alarcos(1984)는 ‘추정’(probabilidad)의 의미를 중심으로 동사의 법(modus temporal)을 삼분하고 있는데 이들은 미래시제를 제외한 모든 직설법 시제(canto, canté, cantaba), 직설법 미래시제(cantaré, cantarí), 접속법의 모든 시제(cante, cantara-cantase)이며, 이들 간의 ‘추정’의 의미의 서열은 접속법>미래>비미래 순이라고 한 바 있다.

³ Veltman(1994)은 ‘Si p, entonces’에서 조건문의 진리치가 참이라면, p가 거짓이고 q가 참이어야 한다는 전통적 논리체계(material implication)는 모든 조건문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p가 참인 모든 가능 세계에서 q가 참이면 조건문의 진리치가 참이라는 엄밀한 추의(strict implication)와 여기에 언급된 가능 세계가 현실 세계와 차이점이 최소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가변적이며 엄밀한 추의(variable strict implication)로 확장되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는 스페인어의 si절도 그 ‘추정’의 의미가 시제적으로 현재와 과거에 제한되거나 미래의 상황이라도 현재에 이루어진 것처럼 가능세계를 만들려는 si절의 본질적 의미 해석을 가능케하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⁴ Haiman(1994)에 의하면, 조건문의 두 문장은 의미적으로 상호 독립적이며, 사실적 의미의 조건문일 경우에는 양보적 의미가 없는한 정상적인 대등문으로 풀어쓰기가 가능하

주하여 그 기능을 ‘가능 세계의 창조인자’(creadores de mundos)로 규정하여 의미적으로 *imaginar, suponer, es posible* 등과 동일시하여 *si* 조건절을 일종의 명사문으로 설명하려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상이한 관점은 다음과 같은 예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각각 *si* 조건절의 전형적 용례들을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2) a. Si comprendes, entonces perdonarás.
- b. Si te escribío, te alegrarás.
- c. Imagina que te escribí y te alegrarás.

(2a)는 전형적인 조건문으로서 문장의 두 부분이 명확하게 전제와 귀결로 나뉘어지고, (2b)는 (2c)와 같이 바꾸어 쓸 수 있다는 점에서 *si* 조건절을 대등문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점과 *si*로 유도되는 문장과 *si*와의 관계는 보문소와 명사중속문의 관계라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장에 있어서 시제 분포와 관련된 시제일치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은 부사문 일반에 적용되는 시제일치 또는 명사문을 포함하는 대등문 일반에 해당하는 시제일치 규칙을 설정해보는 것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장들은 그 의미적 특성상 앞서 살펴본 두 견해의 어느 것도 만족할만한 설명을 제공할 수는 없다.

- (3) Si yo era un técnico malo, yo era peor alumno.

(4) A: Pague Vd. la comida, amigo.

B: ¡Pero si la cambié por la botella de vino!

(3)의 두 문장은 전제와 귀결관계로서는 설명이 불가할 정도로 두 문장이 각각 의미적으로 의존하고 있지 않으며, (4)의 경우에는 Marchese(1977)와 Haiman(1978)이 지적했던 것처럼 *si* 조건절이 전제라기보다는 일종의 화제(topic)로서 기능하고 있으며⁵ 귀결문 자체가 생략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si* 조건절

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조건문의 심층구조가 대등문이라는 Rivero(1979)의 주장은 일단 양보적 조건절을 제외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Bustos(1986)는 Rivero의 관점을 논리적 사고에 바탕을 둔 전통문법의 견해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간주하며, 기본적으로는 의미적 분석에만 제한되었기 때문에 화용적 분석을 통해 보완되어야함을 역설한 바 있다.

⁵ Haiman(1994)에 의하면, -Had it been otherwise, I would have told you./-Women? You can handle them. 등의 문장에서 전제문은 명백히 topic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 Rivero(1979)의 경우에도 -Si has comprendido el problema, pues soluciónalo./-¿Has comprendido el problema? Pues soluciónalo. 등의 문장에서 의문문이 조건절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si*절이 궁극적으로는 대등문을 이문다고 했는데, 조건절 전체를 대명사 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화용적 기능이 topic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의 경우에서 (3)의 경우에는 논리적인 인과 관계가 화자의 개인적 판단에 의존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 외현상 드러나는 두 동사의 시제적 상호 의존관계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귀결문이 생략되어 있는 (4)의 경우에는 거의 독립문의 성격을 갖고 있어 일견 시제의 사용에 제약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시제일치에 대한 전통적 신뢰를 언급한 Farley(1965), Obaid(1967)와 달리 Suñer 및 Padilla(1990)은⁶ 오히려 시제의 불일치(discordancia temporal)를 나열하며 명사문을 제외한 모든 종속문, 특히 부사문과 형용사문에서는 시제일치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si 조건절의 경우에도 특별한 시제일치가 없다는 것이고, 아울러 어떠한 시제형태도 자유롭게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우리가 이미 1장에서 지적했듯이 특정 시제들이 분포상 제약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어떠한 단서도 될 수 없다.

한편, si 조건절을 명사문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si 조건절 내에 포함되는 동사의 시제의 형태를 Rivero가 언급한 소위 ‘세계의 창조인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imaginar, suponer, es posible* 등으로 si를 대체하여 그 시제 분포를 살펴볼 수 있다는 단서를 제공하지만 그와 같이 풀어쓴 명사절에 특히 직설법 미래시제와 접속법 현재 및 현재완료가 출현상 제약을 갖는다는 점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 (5) a. Si la madre se enfada/enfadó/enfadaba/ha enfadado/había enfadado, la niña llorará/llora/lloraba/lloraría/había llorado/habría llorado.
 b. Imagina que la madre se enfada/enfadó/enfadabo/ha enfadado y la niña llorará/llora/lloraba/lloraría/había llorado.habría llorado.
- (6) a. Si hubiera venido/viniera, nos habríamos asustado/asustaríamos.
 b. Imagina que hubiera venido/?viniera, pues nos habríamos asustado/?asustaríamos.
- (7) a. Imagina que viene/vendrá/venga/haya venido/*vendría.
 b. Es posible que venga/haya venido/*vendría.
- (8) a. *Si Pedro vendrá, jugaremos al fútbol.
 b. Imagina que vendrá Pedro, pues jugaremos al fútbol.

⁶ Suñer와 Padilla는 종소문을 크게 명사문, 형용사문 및 부사문으로 나누어 특히 종속문에서 접속법만을 요구하는 접속법 유도 인자가 있는 명사문에서만 어느 정도의 시제일치 규칙이 지켜진다고 서술하고 있다. 물론, 이들의 연구는 시제일치를 접속법구문에 제한하여 조사한 결과이지만, 명사절의 시제일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 (9) a. *Si venga Pedro, jugaremos al fútbol.
- b. Es posible que venga Pedro, jugaremos al fútbol.

(5)와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si를 imaginar로 대체하여 명사문으로 바꾸는 경우 직설법 미래와 접속법 현재 및 현재완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시제형태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설명해낼 수 있다. 단지 접속법 과거의 경우 (6b)에서 보는 것처럼 문법성의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하나, 이는 (7a)와 (7b)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imaginar와 es posible의 대체가 발화시점을 기준으로 한 현재시점이고 동사의 의미적 특성상 (5b)와 (6b)에서처럼 문맥적 일관성이 이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거를 기준시점으로 삼고있는 미래형태가(cantaría) 출현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8a)와 (9a)처럼 si 조건절일 경우에는 비문을 형성하지만 imaginar와 es posible로 대체할 경우 정문으로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직설법 미래와 접속법 현재가 si 조건절에 출현상 제약이 있다는 것을 Rivero의 명사문 가설로서는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3. 의미적 접근

si 조건절의 화용적 전제를 언급한 Bustos(1986)는 전제문이 언급하는 내용의 진위에 대하여 화자는 중립적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중립적 태도는 다름아닌 조건의 접속사 si의 사용에 기인하는 것으로 si절 내에 직설법 미래시제나 접속법 현재 시제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전제의 충돌이 생긴다는 것이다. 즉, 직설법 미래시제가 쓰이는 경우에는 이 시제의 사용이 내포하는 미래의 사실에 대한 화자의 믿음(la afirmación de la creencia de un hecho futuro)과 접속사 si가 내포하는 화자의 중립적 태도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이며, 가능법과거와 접속법 현재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발화문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화자의 중립적 태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접속사 si가 전제하는 화자의 중립적 태도와 불필요한 의미적 반복을 형성하기 때문에 회피되어지고 또 비문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Bustos의 판단은 스페인어의 직설법과 접속법의 화용적 전제가 각각 발화문의 내용에 대한 화자의 믿음과 중립적 태도라는 자신의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si 조건절의 시제 분포상의 제약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Bustos가 또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바로 접속법의 과거 시제들이 si 조건절에서 정문을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단순히 접속법의 화용적 전제가 중립적 태도로서 si의 전제와 잉여적 반복을 이루고 있다는 것으로는 설명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가능법과거(cantaría)의 경우에 있어서도 단순히 접속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점에도 다소 무리가 있다.

먼저, 가능법과거의 경우 이미 Bello(1847)가 직설법으로의 위치를 확인한 바 있으나 1931년의 스페인한림원 문법이 당시 불문법의 영향을 받아 가능법(modo potencial)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 별도로 취급하던 것을 1973년의 문법에서 다시 직설법의 범주 내로 귀속시킨 바 있는 것처럼 의미적으로 분명히 '추정'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사적으로 접속법과 동일시될 수는 없다. 따라서, 가능법과거가 접속법과 의미적 일치를 이룬다면 이는 가능법과거의 어원적 명칭(pos-pretérito)이 시사하듯이 과거를 기준시점으로 해서 그 이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미래시제의 일부라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될 것이다. 즉, 가능법과거는 미래(cantaré)와 기준시점만 달리할 뿐 동일한 미래시제로서 미래시제들이 내포하는 '추정'의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직설법 미래시제들이 si절과 양립불가함은 Bustos의 화용적 전제의 상충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가능법과거의 경우도 이 범주 내에 포함하여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러나, 접속법 현재의 화용적 전제와 si 접속사의 화용적 전제가 si 조건절에서 불필요한 반복을 형성하기 때문에 회피되고 또 비문을 만든다는 Bustos의 견해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접속법과거 시제들이 얼마든지 정문을 유도한다는 점과는 자기 모순을 이루고, 일찍이 Martinet가 언급한 것처럼 잉여적 반복이 오히려 언어의 경제성을 보장한다는 일반언어학적 잣대에도 어긋나는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서반아어를 포함하는 모든 로망스어들은 명사와 형용사, 명사와 동사들이 각각 수많은 일치 현상에 얽매어 있고 그러한 잉여적 반복에도 불구하고 모두 문법성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반복이 오히려 문법성을 보장하는 잣대로 쓰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화용적 전제의 불필요한 반복이 유독 비문을 유도한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접속법 현재와 현재완료(cante, haya cantado)의 경우에는 Bustos의 설명이 수정 보완될 필요가 있다. 즉, 접속법 현재의 경우에는 화용적 전제의 불필요한 반복이 접속법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잉여적이라는 것에서 비문의 근거를 찾아야 할 것이다. 즉, 접속법 현재와 현재완료는 접속법 미래형(cantare, hubiere cantado)의 소멸로⁷ 형태적으로는 현재 및 미래를 중의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언어적 현재의 시제적 의미가 물리적 현재를 기준으로 방금 전과 방금 후를 두루 내포한다는 Molho(1984)의 견해에 비추어 의미적으로도 미래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1i)와 (1j)의 경우도 외형상 현재이지만 의미적으로는 미래의 문맥이라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접속법 현재와 현재완료형은 의미적으로는 미래에 가깝다. si절에 접속법과거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의미적으로 과거와 현재의 사실에 대한 반대의 가정 또는 추정이기 때문에 그 화용적 전제의 반복도 일치현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간주할 수 있겠지만, si절에

⁷ 접속법 미래는 접속법 현재로 대체되며 이미 의고적으로 어휘화되어 있으며, 전통성이 보존된 법전, 성서 등에만 문어로서 남아 있을 뿐이다.

접속법 현재형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si의 화용적 전제와 접속법의 화용적 전제가 반복될뿐더러 여기에 미래시제의 ‘추정’이 부가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Bustos가 언급하는 불필요한 잉여적 반복을 형성하고 화자의 입장에서 이와 같이 복잡한 사고를 한꺼번에 뭉뚱그려 발화하기에는 이미 그 복잡성이 한계적이라는 데에서 si와 접속법 현재형의 양립불가함의 원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직설법 현재가 si절에서 미래의 의미를 대체하며 접속사 si가 유도하는 중립적 태도를 반영하여 ‘추정’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또 다른 형태의 사용이 구조적으로 불필요하다는 것도 접속법 현재형의 사용을 제한하는 다른 하나의 원인일 수 있겠다. 즉, 이는 동일한 의미의 Si canto / Si cante의 대립관계에서 Si canto의 일반화가 Si cante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마치 había cantado / hube cantado의 대립관계에서 hube cantado의 사용이 제한된 것과 유사한 경우로 이해될 수 있다.

4. 결론

si 조건절의 시제 분포상의 제약에 대하여 살펴본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전제문에 직설법 미래 시제들과 접속법 현재 시제들이 사용될 수 없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다.

- (i) si절의 의미적 화용적 전제가 미래시제들과는 서로 상충되기 때문이며, 접속법 현재일 경우에는 불필요한 의미적 반복을 초래하기 때문에 회피된다.
- (ii) 특히, 접속법 현재의 경우에는 직설법 현재와 si절에서 동일한 의미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사용이 제약될 수 있다.

Bibliografía

- Alarcos Llorach, E. (1984) ‘Cantaría: tiempo, modo y aspecto,’ recogido en *Gramática funcional del español*, 105 - 128.
- Bello, A. (1847) *Gramática castellana*, versión crítica de R. Trujillo, Univ. de la Laguna, Tenerife.
- Bustos, E. (1986) *Pragmática del español*, UNED, Madrid.
- Gili Gaya, S. (1961) *Curso superior de sintaxis española*, Bibliograf, Barcelona.
- Haiman, J. (1994) ‘Conditionals, grammatical,’ en *ELL*, 685-689.

- RAE. (1931)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Espasa Calpe, Madrid.
 -1973, *Esbozo de una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Espasa Calpe, Madrid.
- Rivero, M. L. (1983) 'Aspectos de las oraciones condicionales,' en *Estudios de gramática generativa del español*, 89-110.
- Suñer, M. y Padilla R., J. (1990) 'Concordancia temporal y subjuntivo,' en *Indicativo y subjuntivo*, ed., por I. Bosque, Taurus, 185-201.
- Veltman, F. (1994) 'Conditionals,' en *Enciclopedia de lenguas y lingüística*, ed. por R. E. Asher, 683-685.

ABSTRACT

Tense Distribution in Spanish “si” Conditionals

Un-Kyung Kim

In Spanish si conditionals indicative future tenses and subjunctive present tenses are strictly restricted in use. For relevant explication two different points of view have been revised in this work; a logical one developed by traditional grammarians and a pragmatic analysis proposed by Rivero and Bustos. After discussing them, we can get two motives that can explain the above mentioned tense restriction in Spanish si conditionals. a) the presupposition or implication of si conditional is semantic and pragmatically incompatible with the presupposition or implication of indicative future tenses, b) indicative present and subjunctive present play the same semantic function in si conditional protasis and this opposition has reduced the use of the subjunctive present.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서어서문학과
 전자우편: perla@plaza.snu.ac.kr